

헤겔을 통해 라캉 읽기

사진가 이시우

라캉이론에서 발견되는 헤겔논리학 범주의 유사성으로부터 무의식을 헤겔논리학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 나의 공부를 간략히 요약해 놓고자 한다.

1. 은유·환유 : 직접성·매개성

초기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장치, 즉 상징계로 보았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이 곧 무의식의 기능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의식과 같이 논리가 작용하는 영역이 된다. 라캉이 제시하는 언어의 기능은 은유와 환유이다. 은유와 환유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리된 표로 가름하자.¹⁾

맥락	은유	환유
원칙	쾌락원칙	현실원칙
구조	한번대체	무한대체
작동논리	억압, 고착	부정
조건	폭력, 권위, 권력	질서
형태	이미지	기표연쇄
상호기능	기표연쇄의 정지, 루틴의 정지	분석의 사막, 이미지의 파괴, 언어기능
쾌락의 종류	팔루스적 주이상스	결여가 포함된 쾌락대상인 팔루스
환상의 종류	개별적 환상·가상, 발명된 환상·가상·루틴	보편적 환상
범주	상상계	상징계
세계상	거울반영 이미지	쾌락없는, 찌진한 세계, 부정적 타자의 언어로 오염된 세계 ²⁾
의미	의미의 분수	의미와 무관한 장치, 의미의 사막, 자유연상을 통한 조율
재현	증상, 해석	욕망, 소외
현상	맹신, 광기	사유
대상과 관계	대상a의 피부	대상a의 몸통
헤겔	직접성	매개성
이시우	결	안기

1) 백상현, 유튜브 「라캉의 언어와 대상, 상징계에서 실재계로」; 백상현, 유튜브 「밀레 강의 해설-(부정적이지 않은 해석에 대한 라캉의 요청) 후기 라캉의 해석론. 은유, 해석, 증상의 삼위일체를 해제하라!」, (한국라캉칼리지수업영상); 백상현, 유튜브 「라캉의 대상a, 그리고 '분석의 끝' 개념 설명. 자크-알랭 밀레의 1981년 1월 16일 강의를 해설합니다」, (한국라캉칼리지) 참조

2) 정신분석은 부정적 타자의 언어를 반대로 오염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리하여 타자의 세계가 힘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레터에 의한 리터(litter by letter), 문자에 의한 오염인 것이다. 거세콤플렉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그 오염된 타자의 언어의 세계와는 반대편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다.

초기라캉은 무의식의 증상을 이상 증상으로 보고 상징계를 강화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서는 초기 라캉의 무의식 이론을 헤겔 논리학의 구조와 비교해보자. 억압과 부인은 달리 말하면 고집·고착과 부정이고 헤겔 논리학으로 표현하면 직접성과 매개성이다. 나의 개념을 적용하면 결과 안기이다.

고집·고착을 위해서 억압이라는 의지행위가 작용한다. 은유는 기표연쇄의 정지상태이고 이는 의지에 의한 억압의 산물이다. 은유의 폭력이 환유의 무한대체를 정지시킨다. 헤겔의 직접성 개념자체가 매개의 배제라는 강제·억압에 근거한다. 매개의 내용은 부정적 매개이다. 부정만이 쉽 없는 매개의 대체를 만들어낸다.

헤겔논리학은 라캉을 통해 직접성과 매개를 의지행위로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규정성에서부터 잠재되어 있던 헤겔의 의지적 요소이다. 규정성은 논리규칙이 아니라 의지규칙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결은 고착, 고정, 고립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이고 내용이다. 안기는 비안기의 계기와 무한히 전개되는 장치이다. 안기는 고착된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모순에 이른다. 모순은 결의 성립불가능성이다. 그러나 모순의 필연적계기인 종합을 통해 결이 생성되므로 결의 내용과 의미는 바로 모순안기의 종합과정에서 발생한다.

라캉은 은유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전제할 뿐 환유로부터 은유가 내재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밝히지 못했다. 이는 분석법의 한계이다. 변증법은 라캉이 기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은유와 환유의 외적차이만이 아니라 내재적 차이와 동일성의 계기를 동시에 밝힐 수 있다. 즉 은유와 환유는 별개의 기능이 아니라 한 기능의 두 계기일 뿐이다.

증상·은유·해석이 상상계이자 실재계의 피부라는 것은 외적관찰과 외적전제를 통한 분석법이다. 모순을 실재·대상의 증상이자 표상이라고 하면 모순은 그 발전과정을 통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누적되고 결국은 붕괴되는 것이다. 이는 증상의 누적을 통해, 증상의 발전을 통해, 증상의 첨예화, 대상화, 현실화를 통해 실재가 변하는 과정이 된다.

2. 공백과 비존재

초기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장치, 상징계로 보았다. 그러나 중기인 『세미나 11』에선 급선회하여 ‘무의식은 간극’이라고 선언한다.

‘무의식기능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간극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간극을 통해 무의식기능을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간극의 핵심이란 바로 어떤 존재론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무의식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³⁾

일반적으로 대상은 나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전제되지만, 라캉이 말하는 대상은 나의 상징계 내부의 간극·틈·균열·공백·구멍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공백은 상징계안에서 생성되지만 상징계 아닌 것이 된다. 즉 상징계가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상징계의 외부를 구성한다. 내부에 생성된 외부인 것이다. 혹은 외부가 공백의 형태로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표현하면 내부의 공백과 외부의 색이 같은 것으로 표현된다(●). 또는 음의 공백과 양의 색이 같은 것으로 표현된다(☉).

외부로서의 대상은 그 정의상 알 수 없는 것이다. 공백도 불가지성은 대상과 마찬가지로지만 눈

3) 자크 라캉, 맹정현·이수련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서울: 새물결, 2008), p.52

리의 효과로서, 모순이라는 증상으로서, 공백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의 대상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상은 여전히 외부이고 공백은 상징계 안에서 발생하는 대상이란 점에서 차이와 동일성을 갖는 것이다.

무의식이 언어장치라면 의식과 본질적인 기능이 다르지 않다. 즉 요소나 구조는 다르겠으나 기능이 다르지 않다면 같은 것이다.

라캉이 공백을 존재론으로 위치지은다면 헤겔 존재론에서 공백에 해당하는 개념은 순수존재 혹은 비존재일 것이다. 라캉의 대상a·공백·간극은 실재계로서 알 수 없는 것이다. 단 상상계인 증상을 통해 실재는 계시된다. 헤겔의 순수존재는 곧 비존재로서 실재계에 해당한다. 순수존재를 시원으로 한 논리전개구조는 라캉의 상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정변증법에 의한 논리학의 세계는 모순에 이르러 성립불가능성을 증명한다. 논리계·상징계·권력계·구조계는 생산장치이고 모순은 논리계의 성립불가능성이면서 논리계를 생성하는 원인·동력·실재·사물·대상이다. 모순의 발전과정을 통해 추상이 구체로, 그리고 현실로 발전한다.

3. 무의식과 헤겔논리학

초기라캉의 견해처럼 무의식이 언어의 효과라는 입장이라면 헤겔의 논리학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기라캉의 견해처럼 무의식이 언어와 상징계의 간극·틈·공백·균열이라면 더 이상 언어와 상징계의 논리학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헤겔의 모순론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반트슈나이더나 백훈승등 대부분의 헤겔연구자들은 모순은 의식과 논리 영역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입장에 선다면 무의식은 더 이상 헤겔 논리학이 취급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

무의식이 순수한 의식 외부로서의 사물자체나 대상이라면 그에 접근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라캉의 대상은 의식·언어체계에 발생한 대상a이다. 대상a는 외부대상과 달리 체계 안에 있는 대상으로서 완전한 의식·언어체계의 성립불가능성을 의미한다. 가슴외부에 있는 대상은 가슴과 무관하다가 가슴에 안기는 순간 가슴속 대상이 된다. 순수 안기란 곧 비안기이고 비안기는 완전한 안기의 성립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대상a로 인한 완전한 체계의 성립불가능성이란 불완전한 체계의 성립가능성은 갖는다는 의미가 된다. 라캉은 대상a의 피부를 이루는 증상을 통해, 대상a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모순을 통해 완전한 체계의 성립불가능성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 모순은 대상자체 -대상의 구조, 속성- 를 알 수 있도록 하진 못하지만 대상의 존재함은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무의식에 대해서도 헤겔 논리학과 변증법은 부분적, 우회적 적용가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찾는 것이 향후 나의 과제이다. '안기'는 의식 외에 무의식영역에의 적용가능성을 찾는다.